1천여 청년들 다시 한번 외치는 '성결의 복음'

청년부, 성청연합수련회 갖고 신앙과 사명 재확인

총회 청년부가 주최하고 성청사역위원회가 주관한 '2026 성청연합수련회'가 8월 15일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금년 수련회에는 예성 산하 91개 교회 1,02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공연과 팀워크숍 등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로,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등록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세션과 공연, 팀워크숍으로 이어졌다. 개회예배에서는 나의교회 찬양을 시작으로 최진형 성청회장의 대표기도, 이종만 총회장의 메시지, 청년부장 이승군 목사의 환영사, 총무 권순달 목사의 격려사, 청년사역위원장 최상현 목사의 축도가 진행됐다.

예배 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남빈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찬양과 기도, 광고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후 점심식사와 함께 청년들이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STG의 콘서트가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공연을 통한 즐거움과 새로운 활력을 선사했다.

오후에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홍정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도록 도왔다. 이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 세션은 이종화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찬양과 기도, 셀러브레이션 등의 순서를 통해 참석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곽병훈 목사가 폐회 순서를 진행함으로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적 방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 성결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성결신학원 신임 이사장에 김성진 목사 인준 결의

제2차 실행위원회, 산하기관 이사 인준 등 안건 다뤄

105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의가 목회자 하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여수 베네치아 호텔 현지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의에선 그간 긴 공백 상태에 있던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에 현 이사장직무대행 김성진 목사가 제16대 이사장으로 인준되며 선임되었다. 김성진 신임 이사장은 지난 4월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이날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16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총회성결교신학교 이사장 인준의 건도 다뤄져 시티미션교회 이 규 목사가 무난히 실행위원들의 인준을 받으며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파송의 건이 다뤄져 최상현 목사(행복한), 정희석 장로(남부), 송민우 목사(독일), 송영만 목사(빛과소금)가 각각 인준처리되었으며 △유지재단 이사 파송의 건도 최윤영 목사(거룩한씨성동), 장영만 장로(강서)가 신임 이사로 인준되었으며 감사에는 위성섭 목사(부평남부)가 무난하게 인준처리되었다.

△은급재단 이사 파송도 결의되었다. 초임인 김성은 목사(시흥중앙), 정태관 장로(규암)를 재임키로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자의 뒤를 이어 윤성철 목사(개동)를 신임이사로 각각 인준 결의하였다. △본지 감사의 건도 다뤄져 임기가 만료된 전임자를 대신해 유신 목사(신암)가 인준되었다.

동정

총회장
이종만 목사

8. 10~12	예성부흥사회 여름산상성회
15	성청연합수련회
18	한성연 임원 모임
24~26	전국 목회자하계수련회
28	장로회전국연합회 전국대회
31~9. 5	태국 CCT교단과 MOU 체결을 위해 방문
9. 10	한성연 사중복음 예배 세미나
17	성결신학원 이사장 이 · 취임식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6절)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 위한 공청회 개최

기대효과, 보완책 추진 등 폭넓은 논의 예정

104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총회 대의원 파송 제도의 일대 대변혁을 예고한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0월 12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된다.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 제도는 지난 제105회 총회 선거 과정에서 현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이다.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교단 내 모든 담임목사가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하자는 제도로 3년 후 시행될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과 함께 큰 변화가 예고되는 사항이다.

대의원 선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교단 내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일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자긍심과 참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교단 내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 ▲지방회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교단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단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참석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공청회 당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면 하단 광고 참조)

미디어 사역 강화 위한 미디어사역위 위원 모집

온라인 미디어 사역 강화… 행정의 DX, 컨텐츠 제작 보급

총회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디지털 미디어 사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준비위원장 홍석영 목사 · 이하 미디어사역위)가 출범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나섰다. 그간 총회의 위원회는 임명직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이번에 출범하게 될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미디어사역위는 총회 목회전산부와 함께 행정의 디지털 전환(DX)과 미디어 홍보, 성결TV 운영, 효율적인 온라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콘텐츠 다양화가 이뤄지면서 관련 활동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튜브나 SNS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단 내 교역자(전도사도 가능)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교역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10면 하단 광고 참조)

교단산하 교육기관 신학기 맞아 일제히 개강

영성훈련 · 세미나 갖고 새 출발 의지 다져

장학금을 전달한 남전련 회장 차천용 장로(가운데)와 부회장 배태호 장로(오른쪽 첫번째)

성결대학교를 비롯한 교단산하 교육기관들이 개강과 함께 새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총회성결교신학교는 지난 31일 오전 11시 총회본부교회에서 개강예배를 갖고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김은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세명 목사의 기도 후, 학장대행 신동선 목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차천용 장로와 수석부회장 배태호 장로가 참석해 전달했다. 남전련은 이날 오후 성결교신대원에도 장학금을 전달하며 교단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오고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우들을 격려했다.

새학기와 함께 신입 및 편입생도 4명이 등록하며 활기띤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결교신대원도 9월 1일 오후 개강예배와 함께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오후 6시 총회본부교회에서 개강 예배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개강 세미나는 CBS성서학당 강사이자 중앙루터교회 담임 최주훈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 목사는 '명화로 읽는 신앙: 믿음의 여정 함께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원장 서영원 목사는 "새롭게 맞이하는 학기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며 주의 길을 가는 원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성결대학교도 개강을 맞아 지난 8월 25일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예성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영성훈련을 실시했다. 신학대학원도 오는 10월 19~21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

▷ 1면에 이어

황 목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지도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다. 교회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말씀, 기도뿐 아니라 지방회별 행사와 친교를 통해 목회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주제처럼 목회자들이 바쁜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회복과 새로운 힘을 얻는 데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목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바탕으로 각자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 전파와 교회 섬김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목회자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여수의 밤바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직공고

지 방 회 : 충남지방회
교 회 명 : 하늘꿈교회
교역자명 : 김영복 목사

위 사람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
58조 4항, 5항, 78조 11항, 18항,
115조 2항에 근거하여
충남지방회(2026. 04. 01.)의 결의와
제105회기 제2차 임원회(2026. 07. 21.)
결의에 따라
면직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이 종 만 목사